

산상보훈의 위치와 구약적 배경

(The Setting of the Sermon on the Mount and its Old Testament Background)

黃 昌 起*

◇ 목 차 ◇

- I. 산상보훈의 위치
 - 1. 마태복음에서의 위치
 - 2. 갈릴리 사역에서의 위치
- II. 산상보훈의 구약적 배경
 - 1. 언약적인 맥락
 - 2. 주제의 유사성
- III. 산상보훈의 분해

I. 산상보훈의 위치

산상보훈은 우리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성경의 한 부분일 것이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산상보훈 정도는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더러 있다. 이 정도로 산상보훈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은 그 영향이 지대하다는 말과 일맥상통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실로 산상보훈이 기독교인의 신앙 및 윤리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말로써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나아가서 이 산상보훈이 역사상 개인 및 일반 사회 윤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앞으로도 온 인류에게 계속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기독교 문헌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이에 대한 논문이나 작품도 그 어느 분야보다 많았다고 볼 수 있겠다.

산상보훈에 대한 대명사도 여러가지이다. 산상보훈은 구약에서 오랫동안 약속해 온 천국(the kingdom of heaven)을 그의 인격(person)과 사역(mission)으로 임하게 된(inaugurate)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메시아의 토오라(Torah)요 천국의 대헌장(Magna Charta)이다. 말하자면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를 제시한다는 뜻이다. 그 외에도 산상보훈을 지칭하는 명칭은 다양하다. 즉 '기독교인의 선언서'(the Christian Manifesto), '생활의 설계'(the Design for Life), '성도의 생활 백서'(the Compendium of Rules for Christian Living) 그리고 '천국 윤리'(the Kingdom Ethics) 등으로 불리워진다¹⁾.

* 조교수, 신약학 전공

1) Robert A. Guelich; *The Sermon on the Mount: A foundation for understanding* (Waco: Word Books 1982) p.11

이 산상설교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그 위치를 이해하며 또 구약적인 배경을 담은 계시사 속에서 그 뜻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산상보훈이 처한 위치와 계시사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인 몇 가지만 다루고자 한다.

1. 마태복음에서의 위치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안에서의 위치를 설명하자면 이 복음서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의 구조적 특징에 관하여는 이미 다른 곳²⁾에서 논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그 요점만 말하겠다.

첫째 마태복음에는 크게 나누어 5대 강화(discourse)가 있다. 즉 산상보훈(5~7장), 선교강화(10장), 천국비유(13장), 교회에 관한 강화(18장), 종말론 강화(23~25장)이다. 그런데 이 강화의 끝에는 하나같이 *Καὶ ἐγένετο ὅτε ἐτέλεσεν ὁ Ἰησοῦς* ...라는 종결 후렴문구(the ending formular)로 끝난다³⁾.

둘째로 마 4:17과 16:21이 뚜렷한 역사적인 분기점을 이루고 있다. Ned. B. Stonehouse 교수는 예수님의 공사역(the public ministry)을 베드로의 신앙고백(16:16)을 중심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구분하였는데, 4:17부터는 천국이 임재 하였다는 선포와 천국에 들어 가려면 급격한 변화를 받는 자이어야 함을 선포했으며 16:21부터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선언하고 있다고 보았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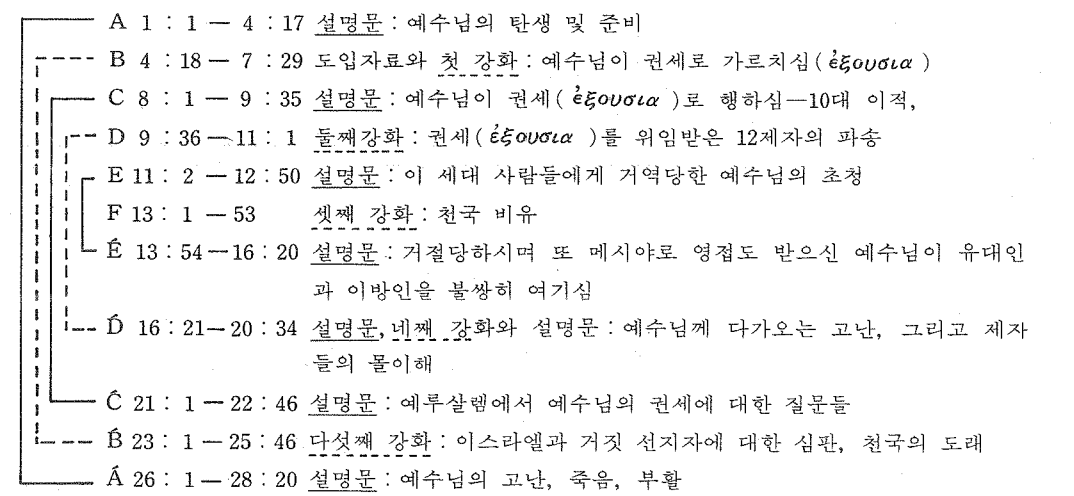
J.D.Kingsbury는 이 구분에서 'Απὸ τότε ἤρξατο ὁ Ἰησοῦς + 부정사의 구문을 중시하여 이 구분은 (i) 예수님의 인품(1:1-4:16), (ii) 예수님의 선포(4:17-16:20), (iii)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16:21-28:20)을 나타낸다고 하여 '기독교적 구조'(Christological Structure)로 알려지게 되었다⁵⁾.

2) 황창기 "마태복음의 구조적 특징" 고려신학보 제12집(1986) pp.80~94
3) 7:28 *Καὶ ἐγένετο ὅτε ἐτέλεσεν ὁ Ἰησοῦς τοὺς λόγους τούτους ἐξεπλήσσαντο οἱ ὄχλοι ἐπὶ τῇ διδασκῇ αὐτοῦ 29 ἦν γὰρ διδάσκων αὐτοὺς ὡς ἐξουσίαν ἔχων καὶ οὐχ ὡς οἱ γραμματεῖς αὐτῶν.*
11:1 *Καὶ ἐγένετο ὅτε ἐτέλεσεν ὁ Ἰησοῦς διατάσων τοῖς δώδεκα μαθηταῖς αὐτοῦ, μετέβη ἐκ εἰθεν τοῦ διδάσκειν καὶ κηρύσσειν ἐν ταῖς πόλεσιν αὐτῶν.*
13:53 *Καὶ ἐγένετο ὅτε ἐτέλεσεν ὁ Ἰησοῦς τὰς παραβολὰς ταύτας, νετήρην ἔκειθεν.*
19:1 *Καὶ ἐγένετο ὅτε ἐτέλεσεν ὁ Ἰησοῦς τοὺς λόγους τούτους, μετήρην ἀπὸ τῆς Γαλιλαίας καὶ ἦλθεν εἰς τὰ ὄρια τῆς Ἰουδαίας πέραν τοῦ Ἰορδάνου.*
26:1 *Καὶ ἐγένετο ὅτε ἐτέλεσεν ὁ Ἰησοῦς πάντας πάντας τοὺς λόγους τούτους, εἶπεν τοῖς μαθηταῖς αὐτοῦ.*
4) Ibid p.83
5) 4:17 *Ἀπο τότε ἤρξατο ὁ Ἰησοῦς κηρύσσειν καὶ λέγειν Μετανοεῖτε, ἤγγικεν γὰρ 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
16:21 *Ἀπὸ τότε ἤρξατο ὁ Ἰησοῦς δεικνύειν τοῖς μαθηταῖς αὐτοῦ ὅτι δεῖ αὐτὸν εἰς Ἱεροσόλυμα ἀπελθεῖν καὶ πολλὰ παθεῖν ἀπὸ τῶν πρεσβυτέρων καὶ ἀρχιερέων καὶ γραμματέων καὶ ἀποκτανθῆναι καὶ τῇ τρίτῃ ἡμέρᾳ ἐγεροθῆναι.*

세째로 마태복음은 설명문(narrative)과 강화(discourse)가 일정한 관계를 이루며 배열되어 있다. 이 말은 앞에서 말한대로 마태복음에 5대 강화가 있는데 이 강화(discourse)와 연관된 설명문(narrative)이 서로 번갈아 교체적으로(alternating) 배열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들 상호간의 관계는 강화 앞에 나오는 설명문이 곧 그 강화(discourse)를 준비시키는 종속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데⁶⁾ 그 반대로 주장하는 자⁷⁾도 있다.

네째로 마태복음은 그 본문의 여러 곳에는 물론, 이 복음서 전체가 커다란 교차대칭구조(chiasmus, 또는 chiasm)를 이루는 것이 그 특징이다⁸⁾. 이 교차대칭구조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이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금세기에 들어와서이며⁹⁾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이러한 구조와 연관짓는 학자들은 주로 양식사학파의 학자들이었다¹⁰⁾. 그러나 최근에는 복음주의 학자들도 이 구조를 받아들인데, 이는 양식사학파의 가설과는 관계없이 성경 본문의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결과로 보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4가지의 특징을 모두 포괄하는 다음과 같은 마태복음 구조가 발표되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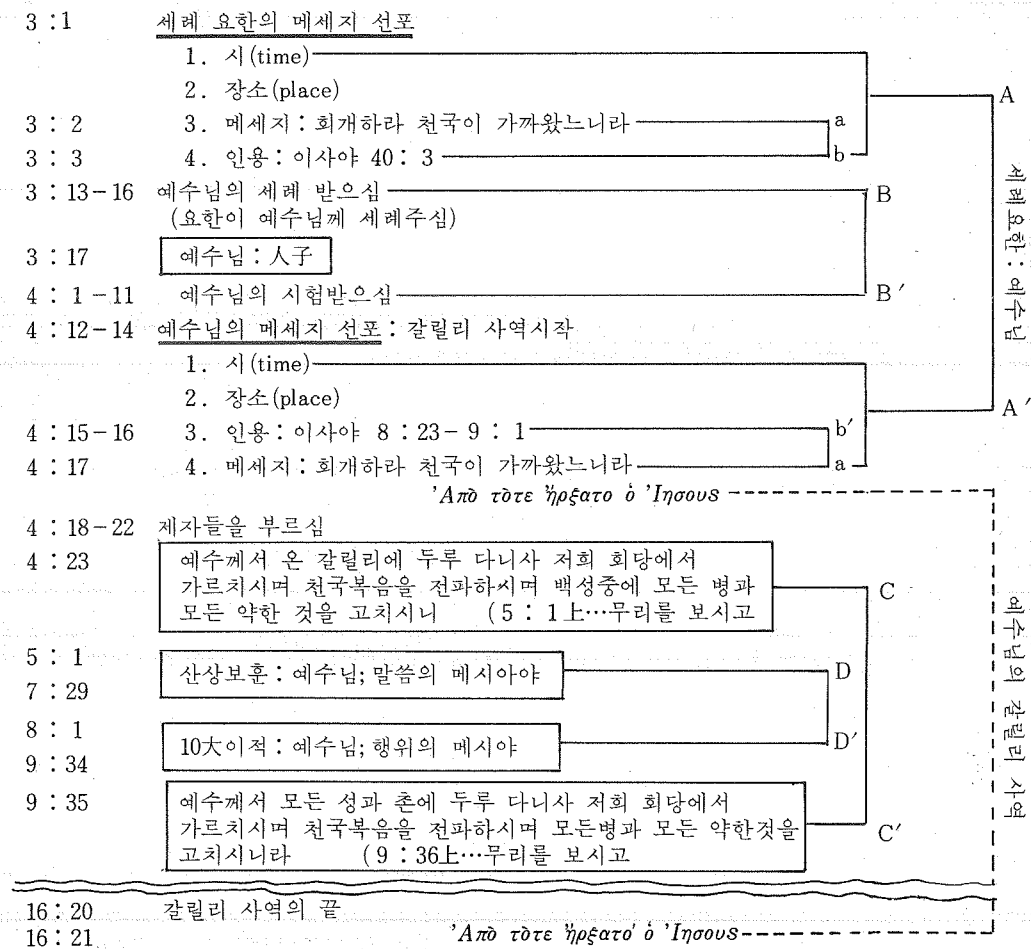
이 도표에 관한 해설은 다른 곳에서 이미 설명되었는데¹²⁾ 여기서 산상보훈이 마태복

6) Ibid p.85
7) Ibid.
8) Ibid pp.86-88
9) Ronald E.Man, "The Value of Chiasm for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Bibliotheca Sacra (1984) pp.146-147.
10) 황창기, op.cit p.86.
11) Ibid, p. 89.
12) Ibid pp.89-94.

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해야 하겠다. 산상보훈이 첫 강화(discourse)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¹³⁾. 우선 첫 강화인 산상보훈에서는 하나님의 원리가 강조되었다면 마지막 강화에서는 그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2. 갈릴리 사역에서의 그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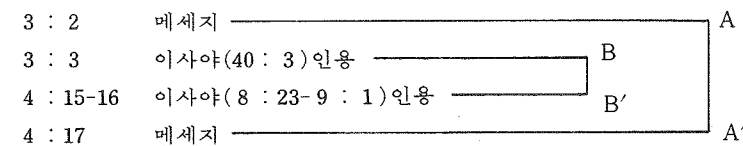
계시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산상보훈은 예수님이 행하신 갈릴리 사역의 한 부분 일에는 틀림없다. 예수님의 전파하심이 4 : 17절부터 이지만 그의 사역은 이미 4 : 12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3 : 1 이하)과도 분명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산상보훈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3 : 1에서 16 : 20절에 이르는 큰 단위의 단락(larger pericope)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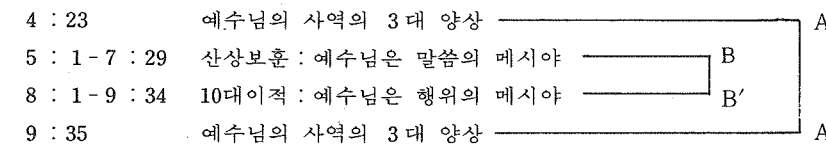
13) 교차대칭구조(Chiasm)의 관계는 삼각형의 합동과 같은 완전한 일치(agreement)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여러 면에 있어서 유사 및 대조되는 일면을 비교하여 그 일맥상통(correspondence)하는 점을 중요시 한다.

이 도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1)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해설을 위한 이사야서 인용과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와 이를 위한 이사야서 인용이 서로 교차대칭구조(chiastic structure)를 이룩하고 있다¹⁴⁾.



(2) 이 현상은 4 : 23에서 9 : 35에 이르는 큰 단위의 단락에서도 발견된다¹⁵⁾.



도표에 예수님의 사역에서 말씀과 이적이 동시에 강조된 점을 눈여겨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사역에도 이적을 무조건 경시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3) 산상보훈은 예수님의 사역(4 : 23)중에서 가르치심과 전파하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는 또한 세례 요한의 사역(3 : 1-12)과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자세한 주석은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간단히 지적한다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외치신 메시지(4 : 17)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3 : 2)와 꼭 같다. 둘째로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행함(ποιεῖν)과 함께 쓰인 나무와 열매의 표현은 산상보훈 7 : 15-20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실 기본 단어 ποιεῖν(3 : 8, 10)은 산상보훈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표제어(Stichwörter)라고 할 수 있다. (5 : 19, 32, 36, 46, 47 ; 6 : 1, 2, 3 ; 7 : 12, 17-19, 21, 22, 24, 26)¹⁷⁾

셋째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구세주이신 동시에 심판주로 묘사되듯이 산상보훈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듣는 자에게 좁은 길로 걸어갈

14) 황창기(박사학위 논문) "The judgment of the Lord in the Sermon on the Mount"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1985) p.51.
 15) A.H.Snyman, "Analysis of Matthew 3:1-4:22" Neotestamentica Vol. 11(1977) pp.19-31.
 16) J.T.Nielsen, Het Evangelie naar Mattheüs I: De Prediking van het Nieuwe Testament (Nijkerk: Uitgeverij G.F. Callenbach B.V. 1978) p.88
 H.J.B.Combrink "The Macrostructure of the Gospel of Matthew" Neotestamentica Vol. 16 (1982) p.77.
 17) W.Egger, "Faktoren der Textkonstitution in der Bergpredigt" Laurentianum Vol. 19(1978) PP.186-187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한다.

(4) 도표에 나타나 있듯이 4 : 17은 이중 역할을 하고 있다. 그 하나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복음서의 새로운 분야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새로운 분야는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4 : 18-22)과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 및 행동으로 요약(4 : 23-25)되고 있다. 그 다음에 산상보훈이 나오고(5 : 1-7 : 29) 또 그 뒤를 예수님의 이적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었고 다시 9 : 35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요약되는데 이는 4 : 23의 내용과 거의 모든 자구(字句)까지도 동일하다.

이와 같은 반복은 4 : 23에서 9 : 35까지의 내용이 하나의 통일을 이루고 있는 증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이 안에는 말씀의 메시아(the Messiah of the word)(5 : 1-7 : 29)와 행위의 메시아(the Messiah of deed)(8 : 1-9 : 34)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¹⁸⁾.

요약하자면 산상보훈은 갈릴리 공사역 초기에 성취된 계시역사의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할 하나님 나라의 메세지이다.

II. 산상보훈의 구약적 배경

산상보훈의 구약적인 배경은 산상보훈 전체를 주석하는 중에 밝혀야 할 것이지만 본고에서는 그 서설적인 개괄이므로 다음 몇 가지 만 설명하고자 한다.

1. 언약적 맥락

산상보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메세지이다. 산상보훈은 Μακάριοι οἱ πτωχοὶ τῷ πνεύματι ὅτι αὐτῶν ἐστὶν 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 (5 : 3)이라고 선언함으로 시작한다. 이는 축복(Beatitudes)으로 크게 축하하는 것과 같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온 것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자체는 신구약을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¹⁹⁾.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스려지고 주관된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주관적으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언약에 속해 있는 언약의 백성(H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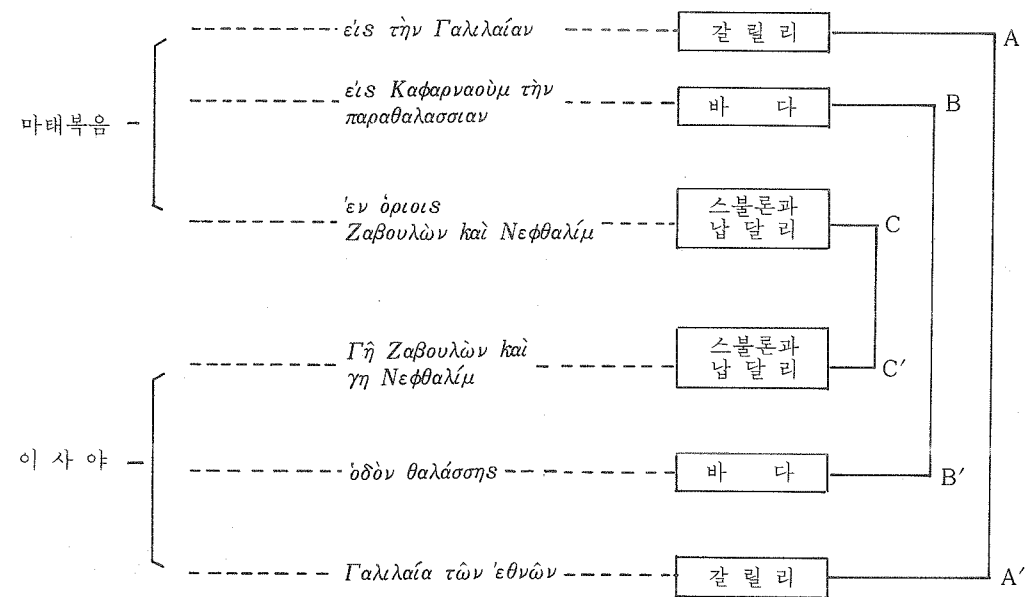
18) J.T.Nielsen, *op.cit.* p.88

H.J.Held, *Matthew as Interpreter of the Miracle stories*(In G.Bornkamm, G.Barth, H.J.Held. *Tradition & Interpretation in Matthew*) (Translated from German by P.Scott) (London:SCM Press Ltd. 1963) pp.246ff; contra:C.Burchard "Versuch das Thema der Bergpredigt zu finden" G.Strecker hrsg. *Jesus Christus in Historie und Theologie* (Tübingen:J.C.B.Mohr.1975) pp.412-413

19) J.L.Helberg "A Startingpoint and Method for Old Testament Study:Meaning for the New Testament and for the Life of the Church" *The Refomed Ecumenical Synod Theological Bulletin* Vol. 4 (2) (1976) p.26

covenant vassal people)들을 돌보시고 계신다. 이는 구약시대(Old Dispensation)에서의 실재(reality)요 신약시대(New Dispensation)의 실재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그는 삶과 죽음의 결속(life and death bond)으로서 주관적으로 세우신 언약에 의하여 그의 나라를 역동적으로 다스리시고 유기적으로 주관하신다²⁰⁾. 산상보훈은 이 하나님 나라의 메세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산상보훈 앞에 나오는 인접구문(immediate context)(4 : 12-5 : 2)을 중심으로 신학적인 의의를 찾아 보자.

(1) 마태복음 4 : 12이하에 시작되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그 뒤를 잇는 "선지자적 모형 계승"(prophetic type succession)이라고 하겠다²¹⁾. 또 마태복음 4 : 14-16에서 아사야 8 : 23-9 : 1을 아래와 같이 교차대칭구조²²⁾를 이루면서(장소의 이름들이) 인용된 것 외에도 이 귀절이 지니는 신학적인 의미도 다양하다. 우선 주님의 사역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섞여 살기 때문에 멸시를 받고 있던 갈릴리에 메시아의 빛이 밝아 왔다(4 : 15-16). 즉 전에는 실망과 그늘에 가리워 살던 그 사람들과 그 지역이 빛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위에 번영하기 시작했다²³⁾.

20) *Ibid* pp.1-14 ; M.G.Kline *The Structure of Biblical Authority*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1972) pp.45-75 ; O.P.Robertson, *The Christ of the Covenants* (Phillipsburg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0) pp.4-15.

21) W.J.Dumbrell "The Logic of the Role of the Law in Matthew 5 : 1-20" *Novum Testamentum* Vol. 23(1981)p.4

22) W.G.Thompson *Matthew's Advice to a Divided Community* (Rome:Biblical Institute Press,1970) p.19

23) W.Hendriksen, *The Gospel of Matthew* (Edinburgh:The Banner of Truth Trust,1973)p.252

(2) 이 메시아의 빛은 이제 온 세상의 빛이 되었음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은 수리아(4:24)까지 미쳤으며 이곳은 당시 로마에 속한 한 지방으로서 그 주민들이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²⁴⁾. 따라서 팔레스틴의 중요 지역인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4:25)도 물론 포함되는 것이다²⁵⁾.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시초부터 이방 민족에 대한 직접적인 사역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3) 산상보훈의 무대는 휘황찬란한 것이 아니다. 지역적으로 비천하고 버림받은 갈릴리 지역에서 이방지역까지 포함하면서, 멸시받는 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새 이스라엘)들을 택하시고, 또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등을 포함한 허다한 무리가 그 산상보훈의 무대배경이다. 온 세상 민족을 향한 사역이 막을 올린 후 이와 같은 산상보훈의 무대가 설정된 것이다. 그래서 Dumbrell은 말하기를 “갈릴리에서 그 진원지(platform)가 선언되었으며, 거기서 제자들이 선택되었으며,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더 계속될 계시에 접하기 위해 산에 모여 들었던 것이다”²⁶⁾라고 하였다.

(4) 따라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가르치신 산과 구약의 모세가 율법을 받은 호렘산 사이에 있는 유사한 점들을 무시할 수 없다. W.Hendrikse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대축복(Beatitudes)의 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호렘산과 자주 비교 및 대조되었다. 한편, 호렘산은 불뿔들이 우글거리는 광야 가운데 위치하여 춥고, 쓸쓸하고 황폐함으로 거의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반면에 대축복의 산은 아늑한 경관과 비탈진 풀밭 위에, 백합, 데이지(daisies), 히야신스, 아네모네 같은 갖가지 꽃들이 만발하여 그야말로 누구나 반기며 기꺼이 초대하는 것 같다. 호렘산에는 하나님이 천둥과 우뢰속에 나타 나서 어 백성들이 두려움을 견디어야 하는 곳이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갈릴리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한가로이 듣고 있는 제자들중에 앉으시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은혜와 진리가 넘쳐 흐르시었다”²⁷⁾.

W.J.Dumbrell은 이와 같이 비교되는 점을 언약의 갱신(covenant renewal)이란 관점에서 설명함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24) W.D.Davies, *The Setting of the Sermon on the Mount* (Cambridge:At the University Press, 1964)p237
W.G.Thompson.*op.cit* p.20 n.62
25) 이 점은 W.Trilling도 *Das Wahre Israel: Studien zur Theologie des Matthäus-Evangeliums* (Munich:Kösel-Verlag 1964) p.136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Man gewinnt den Eindruck, dass Vers 25 in gewisser Weise das Gebiet des Heiligen Landes umreissen soll”
26) W.J.Dumbrell, *op.cit* p. 5
27) W.Hendriksen, *op.cit*.p.261 cf. B.Häring “The Normative Value of the Sermon on the Mount” *Catholic Biblical Quarterly* Vol. 29(1967)pp.375-376. Contra:H.N.Ridderbos, *Matthäus I:Korte Verklaring van de Heilige Schrift*. (Kampen:Kok 1965)p.90

이것은……언약 갱신의 상황 또는 언약을 상기하는 상황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제자들이 이점에 있어서 단체적으로 활동하여 구약 선지자들의 역할과 비슷한 점을 연상시킨다.…… 아마 산을 배경으로하는 전경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석은…마28:16-20에 나오는 세계를 향한 산의 모습이며 이는 곧 갈릴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세상(kosmos)으로 나가도록 주님께서 부탁하셨으며, 이 사실은 분명히 복음의 원초적 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적 구조 전체로서 온 세상에 다 적용되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위임되어진 것이다²⁸⁾.

Dumbrell의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 지나친데가 있으나, 하나님 나라와 그 언약의 성격을 계시역사라는 큰 선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 마땅히 수긍해야 할 점이라고 본다.

2. 주제의 유사성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안에 있는 5대 강화 중에서 가장 독특한 특징을 지닌 강화라고 할 수 있겠다. 학자들 가운데서 산상보훈이 어떻게 해서 이런 탁월한 강화가 되기까지 구성이 되었는지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이겠지만 이는 분명히 산상보훈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다른 곳²⁹⁾에서 마태복음을 오경적 구조로 보려는 학설을 비평한 적이 있는데, 산상보훈의 주제에 관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찾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산상보훈도 모세 오경이 가지는 5대 구분의 기본 구조를 닮았다는 것이다. 과연 산상보훈에 5경적인 주제를 포함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선 이 문제를 좀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자. E.M.Skibbe³⁰⁾는 오경의 주제가 “산상설교의 5대 구분을 이루는 조직원리”(organizing principles for the five divisions of the Sermon)로서 사용된 듯하다고 주장하였다³¹⁾. 이제 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본다³²⁾.

- (i) 5:3-16의 주제는 창세기의 주요주제와 비슷하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어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신다.
- (ii) 5:17-48의 주제는 출애굽기의 주제와 비슷하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다.

28) W.J.Dumbrell, *op.cit*.pp 5-6 “This…may be consistent with a covenant renewal situation or covenant recall situation having been in mind whereby disciples, collectively, function at this point analogously to the way in which Old Testament prophets did…Perhaps more germane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mountain scenario is…the world mountain setting of Matthew 28:16-20 set again in Galilee where disciples are commissioned to go into the world apparently in terms which envisage the application to the world as a whole of the Abrahamic covenantal structure with which the gospel has begun”. cf.H.Milton “The Structure of the Prologue to St.Matthew’s Gospel.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Vol. 81(1962)pp.180-181.
29) 고려 신학보 제12집 (1986) pp.81-83
30) E.M.Skibbe, “Pentateuchal Themes in the Sermon on the Mount” *Lutheran Quarterly* Vol 20 (1968)pp.44-51
31) *Ibid* p.46
32) *Ibid* pp.46-48

(iii) 6 : 1-18은 레위기서를 상기시킨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진정한 예배에 관하여 교훈하신다.

(iv) 6 : 19-34의 주제는 민수기서의 중요 주제인데, 여기서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것과(sojourn),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살피시는지를 알 수 있다.

(v) 7 : 1-27의 주제는 신명기의 주제와 비슷하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은 살 것이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징벌을 받는다.

확실히 매력있는 가설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곧 뒤따르게 마련이다. 먼저 과연 산상보훈의 주제가 위에 보여준 오경의 주제로 요약될 수 있는가? 오경의 주제를 위와 같이 요약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특히 오경을 위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산상보훈이 오경의 주제를 따라서 또는 그 구조를 따라서 현재의 구조로 구성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는가? 즉 예수님이 오경을 옆두에 두고 꼭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가? 마태가 이것을 쓰면서 꼭 오경을 의식했다는 증거는 아무도 제시할 수 없지 않은가?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볼 때 오경과 산상보훈 사이에 놀라운 유사성이 있다는 점을 전면 부정할 수도 없기는 하다. Skibbe가 제시한 이 가설에 대하여 학문적인 연구에 입각한 반론이 아직 제기되지 않은 듯하지만, 앞으로 이 방향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산상보훈과 구약과의 관계에 대한 결론은 산상보훈이 구약적인 배경의 조명 아래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지만 구약에서 오랫동안 약속되어온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곧 산상보훈이기 때문이다. 또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증보자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베루사 사역으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으며, 특히 산상보훈 앞에 나오는, 즉 마태복음의 전반부 초두에만도 이 예언 성취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e.g. 1 : 21, 22 ; 2 : 5-6, 15, 17-18, 23 ; 3 : 3 ; 4 : 14-16). 특히 개혁주의 신학자 가운데 남아의 L.Floor와 같은 학자는 마태복음과 오경 사이에는 그 구조적인 면³³⁾보다도 계시사적인 면에서 서로 일치점을 인정해야 하고 추구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³⁴⁾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III. 산상보훈의 분해

일반적으로 산상보훈은 다음과 같이 나누는 것이 통례이다.

33) 황창기 : "마태복음의 구조적 특징" *op.cit* pp.80-94

34) L.Floor, *De Nieuwe Eksodus Representatie en Inkorporatie in het Nieuwe Testament*. Potchefstroom. (Proefskrif(TH.D) Pu vir CHO, 1969) p.36 "Wij moeten daarom de overeenkomst tussen het evangelie naar Mattheüs en de pentateuch zoeken in de openbaringsgeschiedenis. Dan zal blijken dat gebeurtenissen uit een ver verleden van het volk Israël openbaringshistorisch gerealiseerd worden door de komst en het werk van de Messias"

(i) 서론 5 : 3 - 5 : 16

(ii) 본론 5 : 17 - 7 : 12

(iii) 결론 7 : 13 - 7 : 27³⁵⁾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세분해 보기로 하자. 산상보훈의 서론은 대축복(Beatitudes) (5 : 3-12)로 시작된다. 이 대축복(보통 8복이라고 함)은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계명이 아니라 구약에서 약속한 축복이 주어질 실현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본질을 규정한 것이거나 또는 그 선포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시작된 천국의 새로운 시민이 되었다.

그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향한 그들의 역할이 있기 마련인데 이것들이 5 : 13-16에 묘사되어 있다.

주요 본론(5 : 17-7 : 20)은 율법과 선지자(the law and the prophets)의 성취를 위한 근본원리로 시작되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 효력을 가지는 하나님의 율법의 권세로 오셨다(5 : 17-18).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는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는 것은 산상보훈에서 가장 중심적인 주제인 것이다³⁶⁾. 또 5 : 19-20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적으로 순종해야 할 제자들의 책임과 그의 제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규명하고 있다. 신자라면 산상보훈대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리가 제시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의(the greater righteousness)와 다른 사람들(이웃)에 대한 더 큰 의가 따라 나온다³⁷⁾.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는 중단없는 기도 생활과 황금률(7 : 7-12)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일련의 경고로써 설교를 끝맺으신다.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히 이루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어떤 제자든지 하나님의 뜻의 표현인 율법과 선지자를 기록하지 못하는 자는 지금 여기에서의 천국 생활 뿐 만 아니라 미래에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 가도록 자기 제자들을 권면하신다(7 : 13-27). 물론 우리는 이것을 율법주의적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자에게 산상보훈이 주어졌으며 또 성령의 도움으로만이 이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와 구체적 노력의 실현이 가능하다.

우리는 산상보훈을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을 것이다.

A.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의 특성(characters) (5 : 3-12)

B.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의 역할(roles) (5 : 13-16)

35) C.Burchard, "Versuch das Thema der Bergpredigt zu finden" G.Strecker, hrsg. *Jesus Christus in Historie und Theologie*(Tübingen: J.C.B. Mohr, 1975) p.416

36) R.Riesener, "Der Aufbau der Reden in Matthäus-Evangelium" *Theologische Beiträge* Vol. 9 (1978) pp.174-176

37) W.Hendriksen *op.cit.* p.263

C.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의 책임 (responsibilitis) :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 (fulfillment) (5 : 17-7 : 12)

- (i)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를 위한 근본원리 (5 : 17-20)
- (ii)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를 위한 더 큰 의 (greater righteousness) (인간과의 관계)
 - (a) 살인금지 (5 : 21-26)
 - (b) 음행금지 (5 : 27-30)
 - (c) 이혼금지 (5 : 31-32)
 - (d) 맹세금지 (5 : 33-37)
 - (e) 복수금지 (5 : 38-42)
 - (f) 원수사랑 (5 : 43-48)
- (iii)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를 위한 더 큰 의 (greater righteousness) : (하나님과의 관계) (6 : 1-7 : 6)
 - (a) 더 큰 의의 실천 (6 : 1-18)
 - (b) 더 큰 의의 추구 (6 : 19-34)
 - (c) 판단금지 (7 : 1-6)
- (iv)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를 위한 수단 (means)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며 성화를 촉진) (7 : 7-12)
 - (a) 좋은것을 구하는 기도 (7 : 7-11)
 - (b) 타인에 대한 행위 : 황금률 (7 : 12)

D.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당할 주님의 심판의 경고 (warnings) (7 : 13-27)

- (i) 넓은 문 (7 : 13-14)
- (ii) 거짓 선지자 (7 : 15-20)
- (iii) 자기 기만 (7 : 21-23)
- (iv) 모래 위의 집 (7 : 24-27)

지금까지 우리는 산상보훈에 관한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서론을 다룬 셈이다. 산상보훈의 해석사 누가복음의 평지설교 (Sermon on the Plain)와의 관계, 또 그 청중문제등 많은 분야를 다루지 못했으나 다음으로 미룬다.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안에서의 위치를 바로 파악해야 하며 이는 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란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산상보훈은 계시사적인 흐름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오랫동안 약속되어온 하나님 나라의 메세지로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이 산상보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상보훈은 D.M.Lloyd-Jones의 말대로 어떤 윤리나 도덕률의 범조문이 아니라 어떤 특징의 묘사 (a description of Character)이다. 즉 우리가 지니고 다녀야 할 일종의 새로운 십계명 또는 법규의 모음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설명 (description)을 어떤 특수한 면과 관련지어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³⁸⁾

38) D.M.Lloyd-Jones *Studies in the Sermon on the Mount* (Grand Rapids W.M.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1) p.28

Ash-Wednesday의 “Time of tension between dying and birth”

김 경 철*

I.

1927년 文學에 있어서는 古典主義者, 政治에 있어서는 王黨派, 宗教에 있어서는 英國카톨릭 信者¹⁾라고 한 Eliot의 自己宣言은 자신의 생애뿐 아니라 그의 作品世界에 있어서도 하나의 분수령을 이루어 놓은 사건이었다. 자신의 생애로 말하면 이 宣言을 하기 이전의 모습은 회의주의자였으나 이 宣言이후 그의 생애는 基督敎적으로 바뀌었고 또한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이 宣言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詩를 양분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사실 Eliot의 全體詩와 劇作品은 자신의 改宗을 전후하여 큰 차이가 있으며 이런 차이점은 詩의 內容面에서 뿐만 아니라 詩의 形態面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詩는 詩人의 見解가 反映된 것이므로 그의 詩와 劇作品에 나타나는 이런 詩的 變形은 회의주의자에서 신앙인으로 나아간 詩人 自己變形의 必然的 結果였다. Eliot의 詩에 나타나는 이런 詩的 變形을 구명하는 것은 그의 全體詩를 理解하는 매우 바람직한 한 方法이 된다. Eliot의 개개의 詩들은 “Pattern in the Carpet”²⁾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개개의 詩들을 分析할 때 이 개개의 詩들을 全體詩와 단절됨이 없이 全體詩의 構圖속에서 연구, 검토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稿에서 검토할 Ash-Wednesday는 Eliot가 改宗을 宣言한 그 해 겨울부터 별개의 詩로서 出版되어 1930년에 하나의 題目으로 완성된 詩이다. 新批評의 주장과는 달리 Eliot의 詩에는 詩人의 見解가 詩의 이면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詩의 철저한 分析을 통해 筆者는 改宗이후의 詩人의 모습을 추적하려고 시도하였다. 이 詩는 후기시의 흐름을 理解하는 데 매우 요긴하며 어떤 意味에서는 이 詩 Ash-Wednesday가 전체 후기시의 主題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目的을 위해 筆者는 傳記式 敘

*전임강사, 영문학 전공

1) T.S. Matthews, *Great Tom : Notes towards the definition of T.S. Eliot* (New York : Harper & Row, 1974), p. 108에서 再引用.

2) Elisabeth Schneider, *T.S. Eliot : The Pattern in the Carpet* (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5)의 題目에서 모방.